

貿易學科의 問題와 展望

吳 世 昌

(啓明大 貿易學科)

I. 序 言

1. 貿易學科의 生成背景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經濟는 前近代의 農業國家에서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높은 近代의 工業國家로 변모하였으며 높은 經濟成長率과 輸出伸張率에 힘입어 1인당 소득도 1960년의 100달러 미만 수준에서 1984년에는 1,884달러를 기록하여 이른바 너시(R. Nurkse)가 말한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을 벗어나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韓國 經濟의 발전은 開放經濟體制下에서 부족한 資本의 海外에서의 導入과 輸出主導型의 공업화에 의한 무역 확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성과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1962년의 23.1%에서 이제는 80%를 넘어서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무역과 國民經濟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다. 經濟開發過程에서의 문제이다. 즉 국내 여건의 脆弱性, 韓國 經濟의 對外依存性은 海外依存的인 貿易構造의 특징을 초래하였고, 海外依存的인 貿易構造

의 특징은 韓國의 產業構造의 海外依存的인 특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現象은 지금까지의 經濟開發過程에서의 資本構造의 海外依存 특징을 초래함으로써 인한 韓國 經濟의 對外依存性 때문이다. 따라서 심든 좋든간에 貿易의 중요성은 엄연한 우리의 現實問題이다.

이리하여 대다수의 大企業 및 수많은 中小企業이 貿易을 하고 있거나 海外市場, 즉 貿易對象을 개척하고 있어 貿易은 일반 業界에 일반화·생활화되고 있으며, 이는 綜合貿易商事制度의 導入 등 새로운 制度實施와 貿易對象國의 확대, 輸入市場 및 外換市場의 對外開放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금후에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가 經濟의 近代化의 길을 걸어온 이래 무역에 대한 중요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經濟의 貿易 중심적 특징은 필연적으로 社會科學의 일 분야로서의 貿易學의 生成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對外貿易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實證的 科學(positive science)으로서, 貿易政策과 產業政策 樹立에 기여하여 국민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規範的 科學(normative science)으로서, 分析과 方向提示에 따른 實踐的 科學(practical science)으로서의 무역학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하여 1950년대 초 國立 釜山大學校를 嚆矢로 하여, 몇몇 대학에 개설되어 있던 貿易學科가 1960년대에 들어 오면서 상기와 같은 貿易學의 學問的 중요성이 인식됨으로써 무역학이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서 존재가치를 부여받으며 많은 대학에서 經商系列 社會科學 중의 하나의 전문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貿易學의 學問的 性格

세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정한 經濟關係를 갖고 있다. 이러한 經濟的 關係가 원활히 그리고 安定的으로 지속될 때 여기에 國際經濟秩序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秩序를 가져오게 하는 근간의 原理를 國際經濟의 秩序原理라 부르며, 이러한 秩序原理는 自然發生的으로 형성되는 慣習的 系列일지도 모르며, 어떠한 目標에 대한 論理的 思考에 의하여 고찰된 것일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 秩序原理는 關係當事者 전원이 평등한 입장에서 고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일부의 관계 당사자가 주도해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貿易이란 이러한 國際經濟 秩序原理 위에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나라간의 경제적 거래, 즉 財貨, 用役, 生産要素 등등의 國際的 移動을 의미하고, 무역학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국제적 차원에서 理論, 實務, 經營分野로 나누어 연구하는 學問이다. 즉 經濟理論의 國際的 응용인 國際貿易理論의 토대 위에 각국마다 자국의 실정에 맞는 貿易政策의 수립 등을 다루는 貿易理論, 이러한 무역이론의 토대 위에 對外 經濟去來의 主體인 개별 經濟主體가 外國의 개별 經濟主體와의 關係를 契約·履行·終了側面에서 다루는 貿易買賣實務 그리고 海外市場開拓 및 維持·擴大에 목적을 두는 國際經營 등 크게 3分野, 즉 理論·實務·經營分野를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하여 對外貿易을 위한 제반 方向 및 方法 등을 제시하는 學問이다.

3. 貿易學의 學問的 重要性

經濟的 여건과 발전 단계가 상이한 여타 국가에 있어서 貿易學이 독립된 學科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나라와 日本 등을 제외하면 찾

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무역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分野가 貿易學의 體系 속에서 더욱 전문화된 학문으로 발전되지 않고 經濟學이나 經營學이나 法學의 일부로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際協力の 강화, 對外貿易의 擴大, 多國籍企業의 出現 등에 따라,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즉 여건의 변화에 따라 貿易學이 獨立되어 새로운 전문 학문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무역학이 독립된 學問으로서의 生成은 오래된 他學問에 비하면 日淺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經濟的 여건 및 輸出入 확대에 따른 海外進出의 多邊化, 國內市場의 對外開放, 海外投資의 확대 등에 힘입어 貿易學의 研究의 對象도 더욱 확대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貿易學을 獨立된 學問體系로 정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굳이 한국적 특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무역과 이에 관련되는 經營經濟現象의 國民經濟的 意義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와, 그러면서 무역학을 전공하는 무역학과만이 지니는 특성때문에, 그리고 무역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을 양성시킨다는 이유 등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思料된다.

II. 現況과 問題點 및 發展的 提言

1. 現況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의 經商系列學科設置, 入學定員, 貿易學科 教科課程의 構成 현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表 1, 2, 3, 4와 같다.

(表 1) 4년제大學(총 99개 大學)의 經商系列 學科數 및 入學定員(1984년 6월말 現在)

學 科	學 科 數	入學定員
經濟學科	64	6,620
經營學科	79	13,192
貿易學科	66	8,980

〈表 2〉 專門大學(총 38개 대학)의 經商系列 學科數 및 入學定員(1984년 6월말 현재)

學 科	學 科 數	入 學 定 員	備 考
經濟學科	1	46	군산실업 전문대학
經營學科	35	5,704	
貿易學科	21	2,074	

〈表 3〉 4年制大學과 專門大學의 經商系列 學科數 와 入學定員(1984년 6월말 현재)

學 科	學 科 數	入 學 定 員
經濟學科	65	6,666
經營學科	114	18,896
貿易學科	87	10,050

〈表 4〉 大學別 貿易學科 敎科課程의 構成¹⁾
(단위 : %)

大學	經濟學 比 重	經營學 比 重	貿易學 比 重	其 他
서울大	60	—	40	—
釜山大	50	7	36	7
成 大	15	15	54	16
高 大	13	31	37	19
外 大	12	24	53	12
漢 大	4	38	49	12
中 大	—	29	71	—
啓 大	50	3	45	2

2. 問題點 및 發展의 提言

상기 現況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 무역학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보면 經營, 經濟, 貿易 및 3者의 복합 내지 인접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貿易學科에서 전공하는 科目은 經營, 經濟, 貿易의 복합적 및 상호보완적 요소가 他學問보다 강한 학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상기 貿易學科의 生成背景과 貿易學의 學問의 性格 및 그 重要性, 그리고 現況을 통하여 貿易學科와 貿易學의 重要성과 必要성이 강조되에도 불구하고 貿易學科의 必要성 내지는 獨立된 貿易學에 대한 論議가 심심찮게 學會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貿易學科 및 貿易學에 대한 두 분 敎授의 主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國際經濟學과 國際經營學은 貿易學科의 敎科課程

을 구성하는 여러 要素 중 二大支柱의 役割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²⁾

“貿易學의 敎育은 어느 일방에 편중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편중될 수 없는 複合의 性格을 지닌 특수 과학이다. 理論指向的 敎育은 國際經濟學科에 적합한 것이며, 實踐指向的 敎育은 貿易經營學科에 적합하게 된 것이다……兩者의 結合을 통해서 교과과정 이 편성되어야 하고 그 比重은 ‘아아트’보다 ‘사이언스’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³⁾

貿易學科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獨立된 學科로 設置된 지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가를 필자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몇 가지 發展의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現제 貿易學科의 專任敎員 중 절대 다수가 貿易學을 전공하지 아니한 그러면서 이들이 전임을 희망하는 전공학과(주로 경제, 경영)에 전임을 희망한 적이 있거나 희망하고 있는 교수들이다.

물론 貿易學이 貿易學科 출신 교수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은 不問可知이다. 특히 貿易學科의 역사성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敎授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일시적 방편으로 무역학과에 적응 두고, 기회가 있으면 희망학과로 전과할 생각 내지는 무역학의 전체적 이해보다는 자기들의 전공영역에 몰두한 결과 무역학 내지는 무역학의 성격을 我田引水格으로 해석하여 소경들이 코끼리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연출하는 것 같은 奇現象을 낳고 있는바, 貿易學을 國際經濟學과 國際經營學 혹은 이들 중 하나로 보고 있음이 그 證左이다.

어떤 교수들은 상기와 같은 주장의 辨으로 외국에는 무역학과가 없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외국에 있는 학과와 학문은 우리나라에 있어도 좋고 없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論理가 아닐까? 얼마전 外國에도 이런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학회에서 XX學의 한국토착화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필자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이 주는 의미를 제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외국에는 이러한 학과가 많지 않고, 아니 무역학과란 명칭의 학과가 거의 없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무역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무역학의 성격을 지닌 교과목

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입각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적 무역학과를 만들 수 있고 그 學問的, 重要性, 必要性, 獨立性을 世界에 보급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2) '70년대 후반과 '80년대초에 급격하게 貿易學科가 新設됨에 따라 教授不足에 따른, 學科와 學問을 그리고 學生을 무시한, 學校當局의 人事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라도 貿易學을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고, 이들 역시 貿易學의 學問에 대한 몇몇한 소신의 기여와 위축감을 갖게 되었다.

물론 현재에도 교수들의 부족 현상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장래를 생각할 때 금후에 다시 한번 再考해야 할 사항이다.

(3) 貿易學科 專任教員들이 貿易學科의 獨自의 特徵을 내세울 수 있는 教科課程 研究의 遲進을 들 수 있다.

貿易學科의 發展을 위한 전망에서 언급되었지만 현재의 貿易學科의 特殊性을 살리는 길은 慣習과 國際規則 등에 근거한 貿易實務 分野의 開拓이 아닐까 생각된다.

(4) 貿易實務 分野에 대한, 貿易學科 教授들을 포함한 商經系 教授들의 賤視傾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賤視의 경향에 따라 이 分野 教授들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같은 학과에 있으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教授들은 貿易實務分野를 國際經營의 한 분야 혹은 經營學의 여러 機能 중의 한 기능이라고도 한다. 貿易實務 분야의 작은 理論의 世界를 모르고 하는 無知의 所致라 思料되며, 특히 貿易實務를 'Art'로 보는 것은 그 좋은 예다.

물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줄이나 他學問 領域에 대한 겸손과 존경이 學者의 道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討論을 갖자면 기꺼이 응하고 싶다.

(5) 貿易學科 卒業生에 대한 學位名稱이 統一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交敎當局에 절대적 책임이 있으며 아마 기존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의 입김 때문이 아닌가 필자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朴大衛 教授가 1977년 貿易學會 發表時 "經商

系統에서 經濟나 經營이 貿易보다 먼저 確立된⁵⁾ 科로서 제일 나중에 태어난 무역학과를 도와주고 이끌어주지는 못할지언정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成長하는 데 방해하는 태도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한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學位問題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무역학과와 무역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생각할 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문교부 당국에 貿易學科 學位를 貿易學士, 貿易學碩士, 貿易學博士로 統一해 주도록 건의하는 바이다.

(6) 유사학과의 新設 및 新設豫定을 들 수 있다.

예컨대 國際經營學科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國際經營學科 教科課程 및 國際經營學科의 新設을 위한 教科課程을 보면 기존 貿易學科 科目에 다 國際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몇몇 經營學科 科目의 추가가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기존무역학과의 이름만을 바꾼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外國에서 經營學을 研究하고 돌아온 敎授들의 주장이 대개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한 大學에서의 짧은 기간의 研究와 教科課程이 자칫 잘못하면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결과로 30년 전통을 가진 한 나라의 貿易學을 國際經營學이라 주장하게 될 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며 명분만 그럴싸한 뿐이며, 다 그러한 것은 아니나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발 불일 곳을 찾는 데 또 한번 무역학과를 이용하고 있으며, 무역학과는 우롱당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 무역학의 발전에 기여는 커녕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사분오열의 추태를 초래할 뿐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貿易學科의 당면문제는 크게 보면 그 學問의 性格보다 그 外的 要因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指摘하고 싶다.

Ⅲ. 理想的 教科課程 및 展望

貿易學科의 理想的 教科課程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貿易理論의 接近, 貿易買賣論의⁶⁾

接近, 國際經營論의 接近을 중심으로 敎科目을 편성함이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貿易學科의 特性을 살려 독자적 학문영역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필자 자신이 貿易實務分野를 전공하여서가 아니라 貿易買賣에 따른 각종 國際商慣習과 國際規則을 중심으로 그 활로를 찾아야 하지 아니 할까 생각된다.

經濟, 經營 등이 貿易實務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敎授들도 있다. 엄격하게 보면 이들과는 관계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理論과 法則이 있다. 예컨대 海上保險契約, 海上運送契約, 貿易契約, 代金決済 등은 商慣習과 國際規則 등에 의하여 좌우되며 경제나 경영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經濟, 經營에 관한 지식 없는 貿易實務 분야의 연구란 역시 我執과 獨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된다.

상기 3分野가 조화를 이루면서 무역학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분야마다 교과과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을 때 韓國的 貿易學科를 世界에 輸出할 날이 오리라 思料된다.

심원필 교수가 말했듯이, 한국 무역학의 뿌리를 찾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소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토질에 적응해 가며 그 뿌리를 내리는 일이 소중하다⁷⁾는 말이 공감을 가진다. *

<註>

- 1) 鄭丙壽, 「貿易學科 體系에 대하여」, 韓國貿易學會

의 「1984年度 定期學術大會論文集」(1984. 6. 22), pp. 6~11을 참고하였으며, 무역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다른 대학의 경우도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상기 도표의 여타 대학과 거의 비슷한 현상인 것이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무역학 비중이 40%이지만 그 내용은 이론이 전부이다.

- 2) 鄭丙壽, 上揭論文, p. 13에서 引用
3) 安台鎬, 「우리나라 經濟發展의 特徵과 貿易學敎育의 方向」, 韓國貿易學會의 「우리나라 貿易學敎育의 方向과 貿易學編成의 內容에 관한 심포지움」(1977. 12. 14), p. 24의 內容을 引用한 鄭丙壽, 上揭論文, p. 15에서 再引用
4) 무역실무를 'Art'로 보는 견해는 1960년 무역실무를 輸出入節次인 貿易關係法 중심의 강의와 교과서 출간에서 비롯되었다. 무역실무가 Art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필자의 1982년 봄 韓國貿易學會 發表論文을 참조하기 바람.
5) 엄격하게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 아니한 바, 예컨대 부산대학의 경우 경영학과보다 10년 앞선 1953년에 商科大學內에 商學科·貿易學科가 있었으며, 經濟學科는 文理科大學에 소속해 있다가 1964년에 商科大學에 편입되었고, 1977년 商學科는 會計學科로 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신설과 학과의 증설에 따라 경제학파가 1950년대, 경영학파가 1960년대 후반, 무역학파가 1970년대초, 회계학파가 1970년대 후반에 많이 생겼다고 본다.
6) 혹자는 무역상무론과 국제무역매매론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무역매매론은 무역상무론을 포함하며, 무역매매론은 바로 전통적 의미에서 무역실무론이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로 해상보험, 해운, 무역계약, 상사중재, 신용장, 무역법규 등이 계약, 이행, 종료로 구성되는 무역매매론의 각론적 성격은 지니며, 무역매매론은 총론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7) 심원필, 「무역학과 인접학문의 연관성 검토」, (한국무역학회의 「學術發表論文集」, 1984年 6月 22日), p. 2.